

일본 농업경제학회 초청 한·일 심포지엄참석 해외출장 보고서

2017. 4

최지현(선임연구위원)

KREI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□ 출장명: 일본농업경제학회 초청 한·일 심포지엄 참석 위한 현지 출장

1. 출장목적

- 일본농업경제학회 주최 한·일 심포지엄 참석
- 2018년도 한국농업경제학회 주최 공동심포지엄 주제 논의 등

2. 출장기간, 출장자, 출장지

소속	출장자	직급	출장기간	출장지
농림산업정책 연구본부	최지현	선임연구위원	2017.3.28.(화)~3.30(목) (2박 3일)	일본 치바

3. 주요 면담자

- 일본농업경제학회장 모리타 키요히데 교수(동북대)
-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히구치박사
- 일본 동경대 마츠모토 교수 등

4. 한·일심포지엄내용

- 좌장 : 시나가와 마사루 (品川優) 사가대학 (佐賀大学)
- 발표자
- 일본측
 - 오로 코헤이(大呂 興平)교수 오이타대학(大分大学)
 - 일본의 육우부문의 생산구조와 입지의 변동 - TPP의 영향과 관련하여
- 한국측
 - 최승철교수 건국대학교
 - 개발화시대의 한우 생산구조 변화
- 토론자
- 일본측
 - 히가시야마 칸(東山寛)교수, 홋카이도대학 (北海道大学)
- 한국측
 - 우병준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5. 주요토론 및 협의내용

□ 심포지엄 주요토론내용

- 일본입장에서 TPP 협정은 다국간 협정인 동시에 양자 협정의 묶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TPP탈퇴로 인해 TPP에서 정한 협정 내용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음.
- 향후FTA나 EPA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상대국 입장에서는 TPP 협정 내용이 협상의 최저 라인이 되고, 거기서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, 다시 말해 일본으로 하여금 양보하게 할 수 있는지가 그 협상의 성과가 됨. 따라서 미국이 TPP탈퇴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, TPP 협정 내용과 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.
- 양자 협의라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FTA에 대해 합의하고 2012년 발효한 후 현재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. 쇠고기는 한미 FTA에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우려되었던 품목으로서 이는 TPP 협정에 있어 일본의 우려와도 일치함.
- 관세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관세철폐조건이 불리해 일본보다 국내 육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. 한미 FTA는 이미 발효되었기 때문에 한일 비교를 통해서 일본은 국내 육우 생산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더욱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을 기회임.
- 한국은 한·미 FTA 체결에 따라 한우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력 “사육기반확충” 과 “생산 및 유통개선” 정책을 추진하였음. 사육기반 확충 사업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, 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, 사료산업 종합 지원사업, 축산분뇨 처리시설, 마필산업 육성사업, 축산물수급관리 사업(송아지생산안정사업)이 포함됨.
-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에는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,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, 축산경영 종합 자금사업,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, 종축장 전문화 지원 사업, 축산자조금 지원사업,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이 포함됨.
-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서는 한우산업의 국내 생산 환경변화, 육류 소비행동의 변화, 대내외 정책 변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래 한우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.

□ 2018년 공동학회 논의내용

- 2018년도에는 한국농업경제학회 초청으로 일본농업경제학회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. 공동주제는 연내에 간사를 통해서 협의하여 확정함

6. 출장일정

일 시	내 용	비 고
3.28(화)	○ 인천공항→ 동경→ 치바 도착	
3.29(수)	○ 학회참석 및 공동학술대회 논의 ○ 치바 인근 배농가 방문	
3.30(목)	○ 치바→동경→인천공항	